

사설

국제포교 지원책 시급하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4월 26일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국제포교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불타의 가르침을 외국에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수준인 240여명에 불과하며, 원불교의 3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충격을 준다. 숫자에 못지않게 시급한 문제점은 이들이 주로 교포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하여 불교적 기본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조계종단은 포교사나 전법사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포교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불법을 전하는 힘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종단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양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전도선언에 나타난 불타의 정신은 부단한 전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현황과 미래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밝지 않은 사실이다. 2000년 현재 국내 종교계에서 양성한 해외 선교사와 포교사는 1만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승가대 校史전시실 개관에 부쳐

중앙승가대가 학교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교사(敎史) 전시실을 개관했다. 이 전시실엔 학교 연대사를 중심으로 삼선립 및 성장기 △도약기 △팽창기 △김포학사 이전과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기 등으로 나눠 주요 사건이나 사안들을 사진으로 제작하고...

가대가 이번 개관을 통해 승단의 가장 권위있는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종단의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재학생과 졸업생이 더욱 밀접하게 교류하고 화합하는 전기가 되면 이번이 이어져 온 면학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승단 발전의 참된 모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승가대의 이번 교사 전시실 개관은 하나의 조그만 전시관 개관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여러 면에서 큰 의의가 담긴 중요행사다. 한마디로 승

주5일근무 유례없는 '포교호기'

산문화답사 도시인 요구 부합 '국민에 사찰개방' 기본시각 필요 과학적 분석·철저준비 선결과제

조계종, 관련 첫 세미나

4월 27일부터 일부 공무원에 한해 '주5일 근무제'가 시험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찬반양론이 지속됐던 '주5일 근무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기울고 있다.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본지 제367호 2면 기사참조>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장곡)가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주 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역사상 유례없는 포

교의 호기라며, 종단 및 사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후교 교수(서강대 경영학과)는 발제에서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불교계는 포교성과를 얻기 위해 사찰을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기본시각을 가져야 하며 일반인의 수행 정도에 맞는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적했다. 법인 스님(대행사 상설수련원장)은 '주5일 근무제는 포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산사에서도 포교를 행하고, 도심 포교당에서도 수행정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교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이전에,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이 포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앙승가대가 학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사(敎史) 전시실'을 1일 개관했다.

김포학사 4층 법당 양쪽 복도에 패널과 진열형태로 마련된 교사전시실에는 학교 연대사를 중심으로 주요사건이나

교사전시실 개관 중앙승가대

사안과 관련한 사진, 졸업장과 학적부, 학교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중앙승가대는 계속 자료를 수집해 전시하는 한편, 학교 역사를 정리한 '교사(敎史)'도 편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조각종 효암 총리원장(사진 왼쪽)이 중국불교협회 예강 부부서장과 회담을 나누고 있다.

공찰 중창주 지위보전 추진

폐사지 보존·불사활성화 위해 법안 마련

사찰을 장건하다시피한 공찰 중창주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자상승도 가능토록 하는 공찰 중창주 지위보전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찰 중창주지위보전법을 마련키로 했다.

6월 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공찰중창주지위보전법안은 지위보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찰의 기초불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것 이어서 교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영천 은해사는 3일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에 법타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법타 스님(사진)은 65년 법주사에서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광주 원호사 주지, 경주 기림사 주지, 재미 평불협 회장, 평불협 상임부회장, 조계종 총무부장, 불교 시민단체협 상임공동대표, 경실련 지도위원, 은해사 주지, 불교대구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불협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중국과 불교교류 토대마련

학술·밀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진각종과 중국 불교계 간의 불교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효암 총리원장을 비롯한 진각종 대표단은 지난 4월19일부터 27일 까지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 국가종교국, 중국불교협회, 중국불학원 고위관계자와 차례로 만나 밀교문화 및 학술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불교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년을 맞아 중국은 국가종교국은 물론 불교협회 차원에서 양국의 불교발전과 우호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며, 발전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효암 진각종 총리원장은 '양국의 불교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활발한 불교교류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는 의사를 전했다

환영만찬에 앞서 진각종 대표단은 중국불교협회, 중국불학원 관계자들과도 만나 양국간의 불교교

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명우 기자

지관·성오·현해스님

동국학원 새이사 선임

동국학원 이사회(이사장 녹원 스님)는 1일 열린 제184회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황명수 이사과 도원 스님 후임으로 가산불교 연구원장 지관 스님(조계종 원로 의원)과 성오 스님(법어사 주지)을, 임박한 벽파 스님 후임으로 현해 스님(월정사 주지)을 새 이사에 선출했다. 권형진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노후복지시설 마련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 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성명서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라면 삼보정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또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4월 26일날 각 사찰에 전달된 탄원서 첫 머리에 대한불교 조계종을 '한국불교 조계종'이라고 시작하여 본인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삼현 문중의 이름을 도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행 정진에 여념이 없는 문중스님들을 오히려 중상 모략자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든 찾아서 규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낸 탄원서 내용도 역시 누가 보아도 중상모략을 하기 위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치하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탄원서 내용은 이미 1994년도에 삼현 문중 회장스님을 비롯하여 문중 대표스님들이 불교신문과 총무원에 성명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진 바의 천명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천명되었기 때문에, 운달(박정화)스님은 현재 미타암주이며, 비구니 중회의 원이며, 호법부 분과위원등 공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삼보정재에 대하여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 왔기 때문에, 동학사 주지가 만기가 되어 바뀔 때마다

운달스님의 의지와는 달리 '동학사 주지직을 넘본다'느니 하는 온갖 중상모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삼현 문중에서는 '삼현문중 일동 합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사찰에 3번씩이나 똑 같은 내용으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배포하여 문중을 마구 더럽히는 어리석은 마군 권속들을 색출하여, 하루 속히 그 잘못을 반성케 하고, 또 승려의 본분을 지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올바른 마음으로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시키는데, 문중 일동은 뜻을 모을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탄원서가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탄원서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스님들의 심기를 잠시나마 어지럽게 하여 정진에 방해가 하게 된 점을, 삼현 문중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깊이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6(서기 2002년) 4월 27일

삼현문중 회장 보인

삼현문중 대표 상륜

삼현문중 대표 옥봉

삼현문중 재무 승혜